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1. 개념학습 8강 | 늘부전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지문 내용 중에 헛갈리는 부분도 있고, 시험에
뭐가 나올지 감이 잘 안 와요.

이번 작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출제된단다.

- (1) 인물의 대립 양상과, 각 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
- (2) 작품 속 현대적 재해석에 관해 묻는 문제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인물의 성격은 이미 알고 있죠~
특히 ‘현감’의 **가부장적 태도와 책임 회피**, 자기 **합리화**는 중요한 포
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사’는 **단호하고 정의롭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죄목은 수십 가지에 달한다.’ 라든지 ‘시끄럽다. 비겁
한 자군.’ 같은 대사에서 느껴져요. 여성으로서 **남성 중심 사회를 비
판**하는 대사도 인상적이었고요.

아주 잘 봤어! 어사의 당당하고 주체적인 모습,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시각은 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야. 이런 인물의 특징
을 묻는 문제는 물론이고, 여성 어사를 설정한 의도를 묻는 문제도 생각
해 볼 수 있겠지.



음... 여성 어사를 설정한 의도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이 작품은 여성 어사를 통해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여성
의 사회 참여를 옹호**하는 **현대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란다.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요. 당신들한테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어요.’라는 어사
의 대사가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이 부분은 주제와 직
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는 현대의 시각에서 재해석했다고 할 수 있단다. 또 **현대적 재
해석**이 드러나는 부분은 어떤 곳이 있을까?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1. 개념학습 8강 | 놀부전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무대가 밝아지면 동헌의 마루와 마당이 보인다. 아침.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다. 개막 때 보았던 연기자 한두 명도 요즈음 옷차림으로 나타나 주민들 틈에 끼나. 놀부가 **풍금**(놀부의 아들)의 등에 업혀 나온다. 사람들이 다 모여 웅성거릴 때 암행어사 일행이 들어온다. 암행어사는 마루에 올라가 의자에 앉는다.

고지기: 주민 여러분! 암행어사이십니다.

사람들이 놀라 머리를 숙인다.

어사: 현감과 그 졸도를 끌어내라. 이제부터 현감의 죄목을 공개한다.

주민들:**여자 목소리아, 여자야.**(**어사가 여자로 설정됨.**)

포졸이 현감과 이방을 끌고 나와 어사 앞에 앉힌다.

어사: 네가 분명 현감이겠냐? 너는 이방이고?

현감:**아.....니? 여자야? 암행어사가 여자? 원 살다 보니 별꼴 다 보겠네. 말세다. 말세!**(**어사가 여자인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 가부장적인 태도. 현감의 가치관과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사: **너 같은 자가 도처에서 백성을 괴롭히니 말세가 온다.**(**지배층의 탐욕을 비판함.**) 내 이처럼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 곳은 처음 봤다. 네 죄목은 수십 가지에 달한다. 너도 잘 알 것이다.

현감: 좀 생각해 봅시다.

잠시 사이.

풍금: (놀부 처에게) 어머니, 나 저 어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놀부 처: 암행어사는 숨어 다니는 분이다. 네가 어디서 봐?

풍금: 맞다, 맞아. 에미 제비! 그 깃시! 작은아버지 집에 동지를 틀고 살던 제비. 그 제비예요. **제비가 어사가 됐어!**(**비현실적 요소. 전기성. 작품에 나타난 비현실적 요소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사: (풍금 쪽을 보며) 그쪽은 왜 소란한가? 자, 현감. 할 말이 있는가?

현감: 왜 하필 나만 가지고 그래요? **현감이라는 관직은 다 그런 겁니다.**(**관직자가 부패함을 보여줌.**) 통치를 하려면 다소의 위법은 부득이합니다. 어사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일이 곧이곧대로 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사, **우린 한배에 타고 있는 몸**(**같은 관직자라는 의미임.**) 아닙니까? 서로 도와야지 처벌하면 뭘해요? 우리들 세력만 약해지지. **내가 쫓겨나면 더 훌륭한 현감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당시 대부분의 관직자가 부패함을 나타냄.**) 다 똑같은데. 아, 자진해서 주는 돈, 왜 마다합니까? 나 억지로 돈 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어사: 그래? 그래서 내가 놀부에게 출두를 요구했다. 놀부, 돈을 자진해서 현감에게 주었나?

놀부: 몸이 불편합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 어사: 잘 안 들린다.

풍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강탈당했습니다.(현감의 발언이 거짓임을 알 수 있음.)

어사: 현감, 부녀자 강탈에 대해서 물어볼까?(현감이 돈뿐만 아니라 부녀자도 강탈함.)

현감: 과장입니다. 그런 걸 사람들 앞에서 왜 묻습니까. 창피하게.

어사: 창피한 줄은 아는군. / 현감: 무슨 팔자로 여자한테 걸렸을까!(여자인 어사한테 걸린 것을 분통해 함. 가부장적 사고)

어사: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요. 당신들한테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어요. 오죽했으면 주상 전하께서 예부터 안방과 부역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었던 우리 여성들을 밖으로 나오라 하셨겠나.(남성 중심의 사회 체계를 비판함. **현대적 재해석이 나타나는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현감과 이방을 투옥하라.

이방: 잠깐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사: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이방: 바로 그겁니다. / 어사: 시끄럽다. 비겁한 자군. 자, 어서 두 죄인을 투옥해라.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간다. 사람들이 야유를 한다. 새끼 제비가 날아온다.

어사: (손을 흔들며) 그래, 곧 갈 거다.(자신도 제비이기 때문에 새끼 제비에게 인사를 한 것임.)

놀부가 앞으로 나온다.

놀부: 어사 나리!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현감한테 강탈당한 돈,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요. 제발 제 돈 찾아 주세요. (주민들이 야유를 한다.) 저는 깨끗하게 돈을 벌었는데(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음을 주장함.) (주민들 쪽을 보며) 저것들은 왜 나를 비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속에서 “구두쇠”, “노랑이”, “심술쟁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어사: (주민들에게) 돈 있는 사람을 괜히 비웃는 버릇은 좋지 않다. 너희들더러 누가 돈 벌지 말라고 했는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정당하게 축적한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현대적 재해석이 드러나는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너희들도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라. 자, 이 모임은 끝났다. (어사가 마당으로 내려온다.) ……한 가족 간의 일에 타인이 왈가불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듣건대 그대는 동생, 그 가난한 동생을 추방했다는데 좀 심한 일 아닌가?

놀부: 추방이라뇨. 사람 만들려고 매질을 한 셈입니다.(동생 흥부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매질을 한 것이었음.) 마음은 아팠습니다. 대신 흥부는 지금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어사: 네가 흥부를 보았는가? / 놀부: 그게……, 음…… 형님, 고맙습니다. 하더군요.

어사: 다행한 일이다. 어제 좋지 못한 꿈을 꾸었지? 얼굴에 나타나 있어.

놀부: ……네, 창피한 꿈이죠. 그래서 피곤합니다. 늙어 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노욕(늙은이가 부리는 욕심)에 미쳐 가는 것 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더욱 벌고 싶으니…….(돈과 부에 관심이 많은 놀부의 성격에 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사: 제비 다리를 꺾어서라도. / 놀부: 네?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놀부가 곧 꿈이 제비 다리를 꺾는 꿈이었음을 알 수 있음.)

어사: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고.(놀부의 물음에 말을 돌리고 있음.) (풍금에게) 네가 아들이라 했지? 그 남자, 향실이라 했나? 불쌍한 애다. 그러나 똑똑하다. 잘 보살펴 주도록.

놀부: …… 내 그럴 줄 알았지. 밤에 담을 넘어 다니더니.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1. 개념학습 8강 | 놀부전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대가 밝아지면 동헌의 마루와 마당이 보인다. 아침.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다. 개막 때 보았던 연기자 한두 명도 요즈음 옷차림으로 나타나 주민들 틈에 끼다. 놀부가 풍금의 등에 업혀 나온다. 사람들이 다 모여 웅성거릴 때 암행어사 일행이 들어온다. 암행어사는 마루에 올라가 의자에 앉는다.

고지기: 주민 여러분! 암행어사이십니다.

사람들이 놀라 머리를 숙인다.

어사: 현감과 그 졸도를 끌어내라. 이제부터 현감의 죄목을 공개한다.

주민들: ……여자 목소리야, 여자야.

포졸이 현감과 이방을 끌고 나와 어사 앞에 앉힌다.

어사: 네가 분명 현감이겠냐? 너는 이방이고?

현감: ……아……니? 여자야? 암행어사가 여자? 원살다 보니 별꼴 다 보겠네. 말세다. 말세!

어사: 너 같은 자가 도처에서 백성을 괴롭히니 말세가 온다. 내 이처럼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 곳은 처음 봤다. 네 죄목은 수십 가지에 달한다. 너도 잘 알 것이다.

현감: 좀 생각해 봅시다.

잠시 사이.

풍금: (놀부 처에게) 어머니, 나 저 어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놀부 처: 암행어사는 숨어 다니는 분이다. 네가 어디서 봐?

풍금: 맞다, 맞아. 에미 제비! 그 깍시! 작은아버지

집에 등지를 틀고 살던 제비. 그 제비예요. 제비가 어사가 됐어!

어사: (풍금 쪽을 보며) 그쪽은 왜 소란한가? 자, 현감. 할 말이 있는가?

현감: 왜 하필 나만 가지고 그래요? 현감이라는 관직은 다 그런 겁니다. 통치를 하려면 다소의 위법은 부득이합니다. 어사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일이 곧이곧대로 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사, 우리 한배에 타고 있는 몸 아닙니까? 서로 도와야지 처벌하면 뭘해요? 우리들 세력만 약해지지. 내가 쫓겨나면 더 훌륭한 현감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아, 자진해서 주는 돈, 왜 마다합니까? 나 억지로 돈 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어사: 그래? 그래서 내가 놀부에게 출두를 요구했다. 놀부, 돈을 자진해서 현감에게 주었나?

놀부: 몸이 불편합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 어사: 잘 안 들린다.

풍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강탈당했습니다.(

어사: 현감, 부녀자 강탈에 대해서 물어볼까?

현감: 과장입니다. 그런 걸 사람들 앞에서 왜 묻습니까. 창피하게.

어사: 창피한 줄은 아는군. / 현감: 무슨 팔자로 여자한테 걸렸을까!

어사: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요. 당신들한테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어요. 오죽했으면 주상 전하께서 예부터 안방과 부역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었던 우리 여성들을 밖으로 나오라 하셨겠나. 자, 이 현감과 이방을 투옥하라.

이방: 잠깐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사: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이방: 바로 그겁니다. / 어사: 시끄럽다. 비겁한 자

군. 자, 어서 두 죄인을 투옥해라.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간다. 사람들이 야유를 한다. 새끼 제비가 날아온다.

어사: (손을 흔들며) 그래, 곧 갈 거다.

놀부가 앞으로 나온다.

놀부: 어사 나리!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현감한테 강탈당한 돈,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요. 제발 제 돈 찾아 주세요. (주민들이 야유를 한다.) 저는 깨끗하게 돈을 벌었는데 (주민들 쪽을 보며) 저것들은 왜 나를 비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속에서 “구두쇠”, “노랑이”, “심술쟁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어사: (주민들에게) 돈 있는 사람을 괜히 비웃는 버릇은 좋지 않다. 너희들더러 누가 돈 벌지 말라고 했는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도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라. 자, 이 모임은 끝났다. (어사가 마당으로 내려온다.) ……한 가족 간의 일에 타인이 왈가 불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듣건대 그대는 동생, 그 가난한 동생을 추방했다는데 좀 심한 일 아닌가?

놀부: 추방이라뇨. 사람 만들려고 매질을 한 셈입니다. 마음은 아팠습니다. 대신 흥부는 지금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어사: 네가 흥부를 보았는가? / 놀부: 그게……, 음…… 형님, 감사합니다. 하더군요.

어사: 다행한 일이다. 어제 좋지 못한 꿈을 꾸었지? 얼굴에 나타나 있어.

놀부: ……네, 창피한 꿈이죠. 그래서 피곤합니다. 늙어 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노욕에 미쳐 가는 것 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더욱 벌고 싶으니…….

어사: 제비 다리를 꺾어서라도. / 놀부: 네?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사: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고. (풍금에게) 네가 아

들이라 했지? 그 남자, 향실이라 했나? 불쌍한 애다. 그러나 똑똑하다. 잘 보살펴 주도록.

놀부: …… 내 그럴 줄 알았지. 밤에 담을 넘어 다니더니.

어사: 아버지를 잘 모시고 부친이 벌여 쌓아 둔 재산 좋은 데 쓰도록. 세상에 태양과 달이 있고, 양지와 음지가 있듯이 인간 사는 세상에는 돈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행복한 사람이 서로 부벼 대며 살고 있다.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서로 상부상조하며.

놀부 처: 훌륭한 말씀입니다. 다 늙기 전에 돈을 좀 쓰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사: 혼자만 쓰라는 말이 아니다.

어사가 걷는다.

풍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판입니까? 제비가 인간을 재판하고 설교를 해요. 참, 창피한 인간이 됐네요.

음악이 깔리며 어사가 노래를 하고 주민들이 춤을 춘다.

어사: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 천년 만년 별들은 변함이 없네
아름다운 별들은 우리의 소원 / 별들은 모여 산다 더불어 산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영원하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더불어 살자 / 너도나도 모여서 더불어 살자

[A] 저 먼 산의 높고 푸른 나무들 / 서로 기대고 의지해 더불어 산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굳세어라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네 / 좋아도 싫어도 같이 산다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한다 / 정이랑 사람이랑 서로 나누고

감싸고 덮어 주며 더불어 살자”

바람 소리. 명멸하는 조명. 무대는 개막 때의 연습

장으로 되돌아간다.

연출가: ……야, 오랜만이다. 다 모였어?

지휘자: 300년 전의 세상…… 단순한 줄 알았더니 복잡하군. 놀부가 큰소리치더니…… 욕심 많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악하진 않았어.

연출가: 놀부의 아들, 풍금이와 그 처녀, 향실은 어떻게 됐을까?

지휘자: 영원히, 지금도 만나고 있겠지. 흥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연출가: 그 베짖이. 베짖이는 영원히 베짖이야. 개미는 될 수 없거든. 흥부는 오늘날 살아 있다면…… 예술가야. 베짖이한테는 노래나 부르도록 내버려둬야 해. 베짖이로 태어났는데, 흙을 파고 농사하라 해도 그건 무리야. 베짖이가 노래나 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은 도와야 해. 결국 나…… 자네들도 베짖이니까. 놀부가 그걸 몰랐어.

지휘자: 흠…… 놀부가 또 나타날 것 같아. 화를 내며.

연출가: 그럴지도 모르지. 자, 우리 베짖이들, 노래나 부르고 오늘 연습은 끝냅시다.

음악이 깔리며 여태껏 소개된 노래의 부분 부분이 합창되며 막이 내린다.

- 「놀부전」

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현감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성을 위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며, 청렴결백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는 인물이다.
- ②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하고, 가부장적 권위 의식에 젖어 있는 인물이다.
- ③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포용하며, 원만하고 협력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려는 인물이다.
- ④ 정의롭고 강직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려는 인물이다.
- ⑤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주변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이다.

2.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어사’의 가치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며,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
- ②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며,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가치관
- ③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가치관
- ④ 노력과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치관
- ⑤ 전통적인 가치와 미덕을 존중하고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며, 공동체의 화합과 번영을 추구하는 가치관

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작품의 주제 의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질만능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 ②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와 개선 촉구
- ③ 예술의 가치와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지지
- ④ 획일적인 교육 방식과 사회적 통념에 대한 비판적 시각
- ⑤ 개인의 정체성 탐구와 자아실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4.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놀부 처는 놀부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설 것이다.
- ② 풍금은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③ 연출가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계획을 세울 것이다.
- ④ 지휘자는 놀부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재발견할 것이다.

⑤ 어사는 주민들의 잘못된 경제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밑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태도를 비교·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사는 제비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놀부는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② 어사는 돈을 잃은 놀부를 안타까워하고, 놀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다.
- ③ 어사는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놀부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 ④ 어사는 놀부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놀부는 이를 받아들여 탐욕적인 태도를 버릴 것이라고 다짐한다.
- ⑤ 어사는 돈의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놀부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다른 가치를 경시하고 있다.

6. [A]에 담겨 있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② 인간은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
- ③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 ⑤ 예술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해야 한다.

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전기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의 비범함과 신성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대립적인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주제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장면 전환을 통해 극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다른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8. 밑글의 '어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패한 관료 사회를 비판하며 정의를 실현하려 한다.
- ② 여성으로서 남성 중심 사회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있다.
- ③ 백성들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을 지니고 있다.
- ④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상생을 우선하는 가치관을 추구한다.
- ⑤ 탐관오리에 대한 처벌보다 백성 교화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대가 밝아지면 동헌의 마루와 마당이 보인다. 아침.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다. 개막 때 보았던 연기자 한두 명도 요즈음 옷차림으로 나타나 주민들 틈에 끼다. 놀부가 풍금의 등에 업혀 나온다. 사람들이 다 모여 웅성거릴 때 암행어사 일행이 들어온다. 암행어사는 마루에 올라가 의자에 앉는다.

고지기: 주민 여러분! 암행어사이십니다.

사람들이 놀라 머리를 숙인다.

어사: 현감과 그 졸도를 끌어내라. 이제부터 현감의 죄목을 공개한다.

주민들: ……여자 목소리야, 여자야.

포졸이 현감과 이방을 끌고 나와 어사 앞에 앉힌다.

어사: 네가 분명 현감이겠냐? 너는 이방이고?

현감: ……아……니? 여자야? 암행어사가 여자? 원살다 보니 별꼴 다 보겠네. 말세다. 말세!

어사: 너 같은 자가 도처에서 백성을 괴롭히니 말세가 온다. 내 이처럼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 곳은 처음 봤다. 네 죄목은 수십 가지에 달한다. 너도 잘 알 것이다.

현감: 좀 생각해 봅시다.

잠시 사이.

풍금: (놀부 처에게) 어머니, 나 저 어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놀부 처: 암행어사는 숨어 다니는 분이다. 네가 어디서 봐?

풍금: 맞다, 맞아. 에미 제비! 그 깍시! 작은아버지 집에 동지를 틀고 살던 제비. 그 제비예요. 제비가 어사가 됐어!

어사: (풍금 쪽을 보며) 그쪽은 왜 소란한가? 자, 현감. 할 말이 있는가?

현감: 왜 하필 나만 가지고 그래요? 현감이라는 관직은 다 그런 겁니다. 통치를 하려면 다소의 위법은 부득이합니다. 어사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일이 곧이곧대로 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사, 우린 한배에 타고 있는 몸 아닙니까? 서로 도와야지 처벌하면 뭘해요? 우리들 세력만 약해지지. 내가 쫓겨나면 더 훌륭한 현감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아, 자진해서 주는 돈, 왜 마다합니까? 나 억지로 돈 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어사: 그래? 그래서 내가 놀부에게 출두를 요구했다. 놀부, 돈을 자진해서 현감에게 주었나?

놀부: 몸이 불편합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 어사: 잘 안 들린다.

풍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강탈당했습니다.(

어사: 현감, 부녀자 강탈에 대해서 물어볼까?

현감: 과장입니다. 그런 걸 사람들 앞에서 왜 묻습니까. 창피하게.

어사: 창피한 줄은 아는군. / 현감: 무슨 팔자로 여자한테 걸렸을까!

어사: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요. 당신들한테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어요. 오죽했으면 주상 전하께서 예부터 안방과 부역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었던 우리 여성들을 밖으로 나오라 하셨겠나. 자, 이 현감과 이방을 투옥하라.

이방: 잠깐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사: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이방: 바로 그겁니다. / 어사: 시끄럽다. 비겁한 자군. 자, 어서 두 죄인을 투옥해라.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간다. 사람들이 야유를 한다. 새끼 제비가 날아온다.

어사: (손을 흔들며) 그래, 곧 갈 거다.

놀부가 앞으로 나온다.

놀부: 어사 나리!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현감한테 강탈당한 돈,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요. 제발 제 돈 찾아 주세요. (주민들이 야유를 한다.) 저는 깨끗하게 돈을 벌었는데 (주민들 쪽을 보며) 저것들은 왜 나를 비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속에서 “구두쇠”, “노랑이”, “심술쟁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어사: (주민들에게) 돈 있는 사람을 괜히 비웃는 버릇은 좋지 않다. 너희들더러 누가 돈 벌지 말라고 했는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도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라. 자, 이 모임은 끝났다. (어사가 마당으로 내려온다.) ……한 가족 간의 일에 타인이 왈가 불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듣건대 그대는 동생, 그 가난한 동생을 추방했다는데 좀 심한 일 아닌가?

놀부: 추방이라뇨. 사람 만들려고 매질을 한 셈입니다. 마음은 아팠습니다. 대신 흥부는 지금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어사: 네가 흥부를 보았는가? / 놀부: 그제……, 음…… 형님, 고맙습니다. 하더군요.

어사: 다행한 일이다. 어제 좋지 못한 꿈을 꾸었지? 얼굴에 나타나 있어.

놀부: ……네, 창피한 꿈이죠. 그래서 피곤합니다. 늙어 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노욕에 미쳐 가는 것 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더욱 벌고 싶으니…….

어사: 제비 다리를 꺾어서라도. / 놀부: 네?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사: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고. (풍금에게) 네가 아들이라 했지? 그 남자, 향실이라 했나? 불쌍한 애다. 그러나 똑똑하다. 잘 보살펴 주도록.
놀부: …… 내 그럴 줄 알았지. 밤에 담을 넘어 다니더니.

어사: 아버지를 잘 모시고 부친이 벌여 쌓아 둔 재산 좋은 데 쓰도록. 세상에 태양과 달이 있고, 양지와 음지가 있듯이 인간 사는 세상에는 돈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행복한 사람이 서로 부벼 대며 살고 있다.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서로 상부상조하며.

놀부 처: 훌륭한 말씀입니다. 다 늙기 전에 돈을 좀 쓰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사: 혼자만 쓰라는 말이 아니다.

어사가 걷는다.

풍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판입니까? 제비가 인간을 재판하고 설교를 해요. 참, 창피한 인간이 됐네요.

음악이 깔리며 어사가 노래를 하고 주민들이 춤을 춘다.

어사: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 천년만년
별들은 변함이 없네
아름다운 별들은 우리의 소원 / 별들은 모여 산다
다 더불어 산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영원하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더불어 살자 / 너도나도 모여서
더불어 살자
저 먼 산의 높고 푸른 나무들 / 서로 기대고 의지해
더불어 산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굳세어라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네 / 좋아도 싫어도
같이 산다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한다 / 정이랑 사람이랑
서로 나누고
감싸고 덮어 주며 더불어 살자”

바람 소리. 명멸하는 조명. 무대는 개막 때의 연습장으로 되돌아간다.

연출가: ……야, 오랜만이다. 다 모였어?

지휘자: 300년 전의 세상…… 단순한 줄 알았더니 복잡하군. 놀부가 큰소리치더니…… 욕심이 많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악하진 않았어.

연출가: 놀부의 아들, 풍금이와 그 처녀, 향실은 어떻게 됐을까?

지휘자: 영원히, 지금도 만나고 있겠지. 흥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연출가: [A] 그 베짚이. 베짚이는 영원히 베짚이야. 개미는 될 수 없거든. 흥부는 오늘날 살아 있다면…… 예술가야. 베짚이한테는 노래나 부르도록 내버려둬야 해. 베짚이로 태어났는데, 흙을 파고 농사하라 해도 그건 무리야. 베짚이가 노래나 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은 도와야 해. 결국 나…… 자네들도 베짚이니까. 놀부가 그걸 몰랐어.

지휘자: 흠…… 놀부가 또 나타날 것 같아. 화를 내며.

연출가: 그럴지도 모르지. 자, 우리 베짚이들, 노래나 부르고 오늘 연습은 끝냅시다.

음악이 깔리며 여태껏 소개된 노래의 부분 부분이 합창되며 막이 내린다.

- 「놀부전」

9. 윗글의 ‘놀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감’에게 돈을 강탈당했다는 점에서 연민을 느낄 수 있군.
- ② 자신의 행위를 ‘사람 만들려고 매질을 한 셈’이라고 설명하는 모습에서 원작의 놀부와는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어사’의 발언을 통해 긍정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군.
- ④ ‘늙어 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노욕에 미쳐 가는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의 욕망

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어사 나리! 잘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현감한테 강탈당한 돈,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모습에서 사건의 본질보다 자신의 경제적 손실에 더 집중하는 속물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10. 윗글의 [A]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출가’와 ‘지휘자’의 대화를 통해 공연의 주제가 지닌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연출가’와 ‘지휘자’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공연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③ ‘연출가’는 등장인물의 운명에 대한 연출가의 단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지휘자’의 “놀부가 또 나타날 것 같아.”라는 대사는 갈등의 해소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연출가’는 현대적 관점에서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현감은 자신의 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돈을 강탈하고 부녀자를 탐하는 등 탐욕스럽고 뻔뻔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여자인 어사에게 걸린 것을 분통해하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① 현감은 백성을 위하기는커녕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하며, 청렴결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③ 현감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낸다.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④ 현감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is커녕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

⑤ 현감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워하거나 주변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뻔뻔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2. 정답 ④

어사는 돈을 정당하게 벌었다면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하며,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① 어사는 물질적 풍요를 폄하하거나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당한 부의 축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② 어사가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려는 모습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③ 어사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⑤ 어사가 전통적인 가치와 미덕을 존중하거나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3. 정답 ③

연출가는 흥부를 베짖이에 비유하며 예술가의 가치

를 옹호하고, 예술가가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이 예술의 가치와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지지를 주제 의식으로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작품은 물질만능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지만, 이것이 작품의 중심 주제는 아니다.

② 이 작품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⑤ 개인의 정체성 탐구와 자아실현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4. 정답 ③

연출가는 흥부를 베짖이에 비유하며 예술가의 삶을 옹호하고, 놀부가 예술가의 가치를 몰랐음을 안타까워한다. 이를 통해 연출가가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① 놀부 처는 돈을 쓰려고 하지만, 이타적인 목적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② 풍금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지휘자는 놀부의 욕심 많은 모습은 인정하지만, 악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할 뿐 그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하거나 인간적인 면모를 재발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⑤ 어사는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번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잘못된 경제관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는 확인할 수 없다.

5. 정답 ③

어사는 놀부를 비웃는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면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놀부는 돈을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도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① 어사는 제비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며, 놀부는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돈을 되찾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인다.

② 어사는 놀부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한다. 놀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주민들을 비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④ ‘어제 좋지 못한 꿈을 꾸었지? 얼굴에 나타나 있어.’, ‘제비 다리를 꺾어서라도.’라는 어사의 대사에서도 어사가 놀부의 돈 욕심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 놀부가 이를 받아들여 탐욕적인 태도를 버릴 것이라고 다짐하는 부분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⑤ 어사는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과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놀부는 돈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지만, 다른 가치를 경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6. [정답] ②

[A]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며, 좋으나 싫으나 같이 살아야 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②이다.

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거나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③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④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은 [A]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⑤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7. [정답] ⑤

윗글은 극본으로, 무대가 ‘개막 때의 연습장’으로 되돌아가는 장면 전환(‘바람 소리. 명멸하는 조명. 무대는 개막 때의 연습장으로 되돌아간다.’)을 통해 공연 속 이야기(놀부 이야기)에서 바깥의 현실(연습 중인 지휘자와 연출가)로 시점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장면 전환은 30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룬 극중극(劇中劇)이 연습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극의 분위기를 환상에서 현실로 반전시키며, ‘베짱이’와 ‘개미’의 비유를 통해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는 주제 의식을 심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① 인물의 외양 묘사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건의 긴박함보다는 탐관오리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② 시대 배경이 ‘300년 전’으로 언급되지만, 현실감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제비가 어사가 됐어!’라는 풍금의 대사를 통해 전기적인 요소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인물의 비범함이나 신성함을 부각하기보다는, 극적 재미를 더하고 비현실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풍자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④ ‘어사’와 ‘헌감’, ‘놀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지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설은 모순 속의 진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8. [정답] ⑤

제시된 윗글에서 ‘어사’는 탐관오리인 ‘헌감’과 ‘이방’을 처벌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집중하며, ‘헌감’과 ‘이방’을 투옥하는 장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백성들에게 돈을 벌라고 독려하고, ‘놀부’에게는 재산을 좋은 데 쓰라고 권면하는 등 백성을 교화하려는 모습도 보이지만, 하지만, ‘어사’가 탐관오리에 대한 처벌보다 백성 교화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어사’는 ‘헌감’의 죄목을 공개하고 투옥을 명령하며 부패한 관료 사회를 비판하고 정의를 실현하려 한다. (어사: “너 같은 자가 도처에서 백성을 괴롭히니 말세가 온다.”)

② ‘어사’는 여성이 암행어사가 된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헌감’에게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요. 당신들한테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어요. ~ 우리 여성들을 밖으로 나오라 하겠구나.’라고 말하며 남성 중심 사회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비판하고 있다.

③ ‘어사’는 백성들의 원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고, 가난한 동생을 둔 ‘놀부’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 백성들의 삶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어사’는 ‘놀부’에게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서로 상부상조하며.’라고 말하며 공동체의 상생을 강조하는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다.

9. [정답] ①

‘놀부’는 탐욕스럽고 속물적인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지만, ‘헌감’에게 돈을 강탈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시된 글에서 ‘놀부’가 돈을 강탈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인해 그에게 연민을 느끼기는 어렵다. 오히려 ‘놀부’는 강탈당한 돈을 되찾는 것에만 집착하고, 노욕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② ‘놀부’는 동생을 추방한 것에 대해 ‘사람 만들려고 매질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으며, 그저 욕심 때문에 동생을 쫓아냈던 원작의 놀부와는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③ ‘어사’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놀부’가 주장하는 ‘깨끗하게 돈을 벌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④ ‘놀부’는 ‘늙어 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노욕에 미쳐 가는 것 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더욱 벌고 싶으니……’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고 있으며, ‘창피한 꿈’을 꾸었다고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내면의 갈등과 자각을 엿볼 수 있다.

⑤ ‘놀부’는 사건의 사회적 의미나 정의 실현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손실에 더 집중하는 속물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10. [정답] ⑤

해당 부분은 ‘베짱이’와 ‘개미’의 비유를 통해 예술가(베짱이)는 노동(농사)에 적합하지 않으며, 예술 활동(노래)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예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현대적 관점을 반영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① ‘연출가’와 ‘지휘자’의 대화는 공연 주제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보다는, 300년 전 이야기를 통해 현대적인 의미를 찾고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② ‘연출가’와 ‘지휘자’의 대화는 새로운 공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연된 내용에 대한 감상과 해석을 나누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③ ‘연출가’는 단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술가의 존재 방식에 대한 옹호와 예술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④ ‘지휘자’의 “놀부가 또 나타날 것 같아.”라는 대사는 갈등 해소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놀부와 같은 인물이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존재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